

2. 야마토 왜의 출생상의 비밀

(1) 일본어 조어(祖語)를 공유하는 일본민족의 형성

일본열도에 최초로 정착을 한 종족들은, 지금부터 약 250만 년 전에 시작하여 1만여년 전에 끝이 난 빙하기의 말기(약 3만5천년 전쯤?)에 시베리아로부터 사할린-홋카이도 등을 경유해 건너온 (북 몽골로이드 계통으로 추정되는) 아이누 인종과, 언제부터인가 동남아시아로부터 류우큐우-마리아나 제도를 경유해 건너온 남방계의 말라요-폴리네시아인 인종들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당시 한반도에 거주하던 인종과는 그다지 밀접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략 B.C. 1만3천년 경부터 B.C. 300년경에 이르기까지 일본열도는,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낚시와 작살로 물고기를 잡고, 석기와 골각기를 가지고 수렵과 채취를 하며 생활을 하던, 신석기 “쥬오몬” 시대였다. 1877년에 미국의 동물학자 *Edward Morse*가 오오모리(大森)의 조개더미(패총)에서 새끼줄 무늬의 토기를 발견하고, 영어로 *Cord Marked Pottery*라고 기록을 했는데, 후에 쥬오몬(縄文)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다. 진흙을 반죽해서 토기의 형체를 만든 다음 새끼줄 무늬를 찍어서 모양을 내고, 땅위에 불을 피워놓고 저온에서 그슬려 구운 이들 쥬오몬 토기들은, 두텁지만 무르고, 흑갈색을 띠고 있다.

B.C. 300-200년 경, 한반도의 남부로부터 북 큐우슈우 해안 평야 지대로, 쥬오몬 토기보다 한층 높은 기술로 만든 토기를 사용하면서 벼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건너 오기 시작했다. 좀더 높은 품질의 토기를 사용하고 논농사를 짓는 삼한 사람들(주로 가야 사람들)이 한반도의 남부로부터 소규모로 계속 건너오기 시작해서, 큐우슈우로부터 혼슈우의 서부, 또 중부로 이주하면서,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계통의 신석기 선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B.C. 300년경부터 A.D. 300년경까지 600여년에 걸친 “야요이” 시대를 전개한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B.C. 1000년 훨씬 이전부터 벼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본열도에서는 대략 B.C. 300년 이후가 되어야 북 큐우슈우 지방으로부터 논농사가 시작된다.

장기간에 걸친 비교적 평화로운 혼혈과정을 거쳐, 현대 일본어의 조상이 되는 언어(祖語)를 공유하는 일본민족의 원형이 형성된 것은 대략 야요이 시대라고 생각된다. (DNA 연구 결과를 요약한 Omoto and Horai, 1999 와 Diamond, 1998 참조.) 아마 한반도에서 사용되던 언어 중, 가야(변한) 지역의 방언이 일본어 조어의 기본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 어법이나 음운법칙으로 보아 모두 알타이어 계통에 속하지만, 일본어의 기본 어휘는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언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 같다. 야요이 문화는 전투와 정복의 산물이라기보다, 이들 3대 종족 간에 점진적인 융합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 이야기를 보자. 신라 8대 아달라 왕 4년[157년] 어느 날, 연오랑이 바다에 나가 [미역이나 파래 같이] 바닷물에서 자라는 풀을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나타나 연오랑을 싣고 일본으로 가 버렸다. 그 곳 사람들은 연오랑을 보고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여 왕으로 모셨다. 세오녀가 남편을 찾아 바닷가에 나가보니 남편이 벗어 놓고 간 신발이 있었다. 마침 바위가 있기에 그 위에 올라가 보았더니, 그 바위는 또 세오녀를 싣고 일본으로 갔다. 이리하여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왕비가 되었다. 이러한 기록은, 한반도의 삼한 지역으로부터 일본열도로의 이주에 얽힌 사연들 가운데 그 한 조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야요이 토기는, 좀더 고운 점토를 회전하는 받침판을 사용해서 빚은 다음, 고온에서 구워 만들었기 때문에, 질감이 치밀하고, 적갈색 혹은 황백색을 띠고 있다. 일본 학자들도 이러한 제조 방법은, 재래 죠오몬 토기 생산기술의 자연스러운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대륙으로부터 새삼스럽게 도입된 제조기술이라고 말한다. 야요이(彌生)라는 명칭은, 이 새로운 형태의 토기가 처음으로 1884년에 발굴된 장소(東京都文京區彌生町)의 이름인 것이다.

三國遺事 延烏郎 細烏女 第八
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 東海濱有延
烏郎細烏女 夫婦而居 一日延烏歸
海採藻 忽有一巖 (一云一漁) 負歸
日本國人見之曰 此非常人也 乃立
爲王 細烏怪夫不來 歸尋之 見夫
脫鞋 亦上其巖 巖亦負歸如前 其
國人驚訝 奏獻於王 夫婦相會 立爲
貴妃 遺 75

일본열도 중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된 북 큐우슈우에서, 가장 초기 형식의 야요이 토기가 (최종 단계의 조오몬 토기와 함께) 발견되었다. 야요이 토기와 논농사는, 북 큐우슈우로부터 일본열도의 동쪽을 향해 점차 파급되어 갔다는 것이 일본 학계의 정설이다.

야요이 시대에는, 주로 돌을 갈아서 만든 도끼를 사용하여 목재를 벌채하고, 이 목재를 사용하여 쟁기와 가래 같은 목제 영농기구뿐 아니라 신발, 절구 등 목기류도 만들었다. 석제 농기구로는 구멍을 뚫어 놓은 돌괭이, 돌칼 등이 있는데, 벼는 낫으로 줄기의 아래 부분을 자르는 방법이 아니라, (작은 구멍을 뚫어 끊을 때어 놓은) 반달형의 돌칼을 가지고 이삭을 자르는 방법으로 수확을 했던 것 같다. 수확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었을 것이다.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변한[가야] 지역의 시장에서는 모든 매매가 쇠 덩이를 사용해 이루어지는데(諸市買皆用鐵), 이는 마치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았고(如中國用錢), 변한 사람들은 쇠 덩이를 왜인들한테 공급해 주었다(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는 기록이 나온다. 일본어의 “카네”가 쇠붙이를 의미하는 동시에 돈을 의미하게 된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야요이 시대에는, 비록 소량이지만 청동기와 철기를 동시에 사용했다. 그런데 당시에 사용하던 장식용 청동 제품들은 비교적 많이 발견되지만, 철기는 별로 발견이 되지 않는다.

벼농사는, 기원전 2천년 내지 3천년 경에 중국의 중부 지방으로부터 삼한 지역에 전파되었다가, 삼한 사람들(주로 가야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건너가 정착을 하면서, 일본열도에 전파되기 시작 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보통은 석기시대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철기시대가 시작된다. 하지만 일본에는 진정한 의미의 청동기 문화는 없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708년에 무사시 지방에서 처음으로 동광이 발견되면서, 일본열도에서 소위 와도(和銅)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동을 가져왔는데, 그 공급원 자체가 불확실

했고, 공급량도 충분치 못했다. 일본에서는 청동을 “한국의 쇠붙이”라는 뜻으로 “카라(韓) 카네”라 불렀다. 일본서기와 고사기는 한국(韓國)을 “카라”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반도로부터의 도래가 주로 가락(駕洛), 즉 가야(加耶) 사람들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 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2) 에가미의 기마민족설

야요이 600년은, 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고분시대”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대충 300년 경부터 375년 경까지를 “전기 고분시대”로 구분하고, 그 이후로부터 650년 경 혹은 700년 경까지를 (“중기”와) “후기 고분시대”로 구분한다. 불교의 영향 때문에 646년 이후에는 일반 서민을 위한 분묘 축조가 금지되었다.

에가미 교수는, 봉분의 모양과 그 속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면밀히 조사한 후, 중기와 후기 300여 년간[대략 375-675년간]의 고분시대 문화는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한데 묶어 버릴 수 있지만, 전기의 문화는 이들과 현저하게 다르다는 주장을 했다(Egami, 1962).

비교적 작은 크기의 전기 고분시대(300-375년)의 무덤들은, 보통 언덕 꼭대기나 능선을 따라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노동력을 가지고도, 위압적으로 굽어보는 원형 혹은 (열쇠구멍 모양의) 전방후원형 무덤을 만들 수 있었다. 흔히 언덕 꼭대기에 구덩이를 판 다음 간단한 목관을 들여놓고, 무덤 안쪽 가장자리에 석판을 두른 다음 돌로 덮개를 만들어 씌웠다. 수혈(豎穴)식 고분이라는 것이다. 반면, 300여 년간 지속된 “후기” 고분시대[375-675년]의 거대한 분묘들은,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해서, 평지에다 엄청나게 위압적인 대규모 봉분을 쌓아 올리고, 물을 넣은 해자(못)와 흙으로 된 독으로 둘러쌌다. 봉분 내부에는 돌을 사용해 통로와 석실을 만들고, 석관을 묻었다. 횡혈(橫穴)식 고분이라는 것이다.

에가미에 의하면, 전기고분에서는 상징적이며 무속

적인 의식용 기구를 비롯해서, 청동 거울, 청동 화살촉, 청동 관 모양의 장식품, 옥팔찌, 돌 조각품, 요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첩표 모양(,)을 한 구슬 (곡옥), 장식용 칼등이 주로 발견된다. 특히 말뼈를 비롯해서, 말과 관련된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에, 중기 및 후기 고분에서는 손잡이를 용이나 불사조 모양으로 장식한 철제 칼 (환두 대도), 날라 갈 때 소리 내는 화살, 철제 말 재갈, 말안장, 말 갑옷, 철제 말 등자, 각종 철제 농기구, 일상 생활용품을 본 뜬 석제 모형, 머리에 쓰는 관모, 특수 점토로 빚은 다음 가마에 넣고 고온에서 구어 만든 스에키(須惠器)라는 단단한 경질 토기, 꽃이나 동물의 모양으로 세공을 한 귀걸이와 목걸이, 남자, 여자, 안장을 엮은 말, 무사, 새, 집, 무기, 의상, 배, 등 다양한 모양을 흙으로 빚어 구워낸 하니와(埴輪) 등이 발견된다. 일상 생활용품인 야요이식의 적갈색 연질 토기, 즉 하지키(土師器)도 발견된다.

바안스(Barnes, KEJ: 4.245)에 의하면, 오오진 능을 옆에서 모시는 배총(陪塚)에 하나인 아리야마 고분 하나에서 만도, 3천여 점이 넘는 철검과 철제 도구가 발견되었다. 바안스(KEJ: 7.256)에 의하면, 스에키는 1950년대까지 조선 토기라고 불리었으나, 그 후 일본 사람들이 만요오슈우에 나오는 “스에” 라는 (그릇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후기 고분시대 300여년을 특징짓는 스에키를 계속 조선 토기라고 부르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에가미에 의하면, 전기 고분시대의 문화는 야요이 시대의 소박하고 주술적이며, 의식적이고 평화로우면서도 동남 아시아적인 성격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기와 후기 고분시대 300여 년간의 문화는, 말(馬)을 타며 호전적인 지배층의 세속적인 취향을 시사하는, 실용적이고, 전투적이며 귀족적인 북 아시아 기마유목 민족의 성격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키더(Kidder, 1985)에 의하면, 중기와 후기 봉분을 축조 할 때에는, 고대 한국의 북쪽 지방의 측량단위인 고려척(35-36 센티미터, 또는 1자 2치)이 사용되었으며, 에가미

주장대로 전기 고분에서는 말뼉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키더(1964)에 의하면, 말방울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된 다음에야 일본으로 전해졌고, 말은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지, 일본 원산이 아니었다.

미즈노(Mizuno, 1969)에 의하면, 이러한 [후기 고분 시대의] 거대한 봉분의 출현은, 그때까지 존재하던 수많은 소규모 공동체들이, 한 개의 강력한 통치자 아래 통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새 지배계급은, 백성들로부터 신생국가의 절대 통치자에 대한 경외감과 숭배 감이 절로 울어 나오도록, 분묘의 형태를 웅장하게 설계했다는 것이다.

김원용(Kim, 1986)에 의하면, 전기 고분들이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수혈석실 방식을 취한다는 사실은, 3세기와 4세기의 가야의 무덤들과 일맥상통 하며, 후기 고분들이 평지에 위치하고, 횡혈석실 방식을 취한다는 사실은 백제 무덤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전기 고분에서 발굴된 장신구들은 가야 지방의 것과 유사하고, 후기 고분에서 발견된 장신구들은 백제의 것들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원용에 의하면, 한반도의 고분에서는 (말을 탈 때 두 발로 디디는) 철제 등자가 주로 3-4세기부터 발견되고, 일본의 고분에서는 철제 말등자가 5-6세기부터 발견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가야 지방으로부터 일본열도에 건너가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선주민들과 어울려 벼농사를 지으며 야요이 시대를 전개한 가야 사람들은, 한반도로부터의 도래 규모가 커지는 4세기 초부터, 논밭을 굽어보는 언덕 능선 위에, 본격적으로 가야식의 봉분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4세기 말, 백제에서 건너온 정복자들은 이들 토착 매장 관행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새 지배 계급은 아예 평지에다가, 극적으로 과장된 거대한 봉분들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본 무덤 주위에 해자(못)를 둘러치고, 장례 물품의 보관소 역할을 하는 배총(陪塚)들을 만들어 놓았다.

날카로운 쇠 날이 달린 낫이나 쟁기를 사용한다거나, 인공 저수지의 관개 시설을 사용하는 선진 영농 기술이 백제로부터 도입되면서, 수많은 야요이 농민들이 쌀농사에서 풀려나, 그 거대한 무덤들을 축조하는 일에 동원될 수 있었

던 것이다.

문화인류학자 이시다(石田英一郎, 1903-1968년)는 1948년 5월에 “일본 민족=문화의 원류와 일본 국가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좌담회에서, 민족학자 오카(岡正雄, 1898-1982년)는 동부 만주 땅에서 농경과 유목을 하던 민족이 2세기 또는 3세기경에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건너와 황족(皇族)이 되었다는 설을 제시했다. 오카는 황족이, 문화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부여인 및 고구려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에가미, 1992: 41-178). 오카의 주장은 야요이 시대를 전개한 가야 사람들과 고분시대를 전개한 백제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야마토의 미마키(美麻紀, 御眞木, 御間城, 崇神)라는 왕이 서거한 직후에, 한반도로부터 대가라(意富加羅) 왕의 아들이 야마토 땅을 찾아 왔는데, 당시 (미마키의 아들인) 야마토의 왕은 대가라 왕자에게, 귀국을 하면, 나라 이름을 (서거한 자신의 부왕의 이름을 따서) 미마나라 부르라고 권했기 때문에 대가라국의 이름이 미마나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에가미(1964)는, 스진(崇神) 자신이 남한의 미마나(彌摩那) 땅에서 큐우슈우로 건너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스진을 미마키 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믿는다. 에가미는 기마 정복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3세기 중 삼한을 지배한 진왕(辰王)의 후손인 미마키라고 주장한다. 에가미의 주장 역시 야요이 시대를 전개한 가야 사람들과 고분시대를 전개한 백제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좌담회에서 제시된 에가미의 주장은, 그 이듬해 2월에 “민족학연구”라는 학술지(13권 3호)의 대담과 토론 내용을 기록한 특집형태로 출판이 되었고, 그 후 소위 “기마 민족설”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에가미(Egami, 1964) 본인은 자신의 이론을, 타이쇼오(大正, 1912-25년)년간에 “민족과 역사”라는 학술지(6권 1호)에 “일선(日鮮) 민족 동원론(同源論)”이란 명칭으로 발표된 키타(喜田貞吉, 1871-1967년)의 이론의 현대판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진의 진수(陳壽)가 (일본의 야요이 시대 말기에)

垂仁天皇 二年 是歲 任那人蘇那葛叱智請之 欲歸于國 蓋先 皇之世來朝未還歟...仍齋赤絹一百匹 賜任那王 然新羅人遮之於道而奪焉... 一云 御間城天皇之世 額有角人 乘一船 泊于... 對曰 意富加羅國王之子名都怒我阿羅斯等 亦名曰于斯岐阿利 叱智干岐 ... 是時遇天皇崩 便留之 仕活目天皇逮于三年 天皇問都怒我阿羅斯等曰 欲歸汝國耶... 改汝本國名 追負御間城天皇御名 便爲汝國名 仍以赤織絹給阿羅斯等 返于本土 故號其國謂彌摩那國 其是之緣也 上 257-259

편찬한 삼국지 위서 동이전 에서는, 변한[가야] 12개국 사람들이 왜인들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문신들을 했다(男女近倭 亦文身)고 기록을 했다. 당 태종 정관 3-10년(629-636년) 간에 (즉 일본의 고분시대 말기에) 요사렴(姚思廉)이 편찬한 양서(梁書) 백제전 에서는, 백제가 왜와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문신을 한 사람들도 꽤 있다(其國近倭 頗有文身者)라고 기록을 했다. 일본에 건너가 논농사를 지으면서 600년 야요이 시대를 전개한 주체가 변한(가야) 사람들이란 사실과, 야마토 왕국을 세워 300년 (후기)고분시대를 전개한 주체가 백제 사람들이란 사실이, 이런 형태로 중국 정사에 기록이 된 것이다.

1991년 말, 아주 우연히 NHK 뉴우스를 보게 되었는데, 바로 일본 천황이 예가미 교수에게 직접 문화 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와세다 대학교수 미즈노 유우(水野祐)도, 그 해 11월 13일 날, 천황으로부터 훈삼등(勳三等) 서보장(瑞寶章)을 수여 받았다. 미즈노(1992: 202) 교수는 오오진-닌토쿠 왕조의 지배 계층이 고구려, 백제의 지배계층과 동일한 부여계 민족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일본 학자들은 아직도, (야요이 시대가 아니라) 신석기 죠오몬 시대에 이미 “일본인과 일본어의 원형” 이 형성되었고, 야요이 시대와 고분 시대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또 내생적으로, 전개된 시대라고 믿고 싶어한다. 빗대어 말 한다면, 진화론(the doctrine of evolution)적인 발전 과정을 믿고 싶어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가미나 내가 주장을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충격(outside shock)에 의한 발전, 즉 창조론(the doctrine of creation)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옛날 일본은 삼한과 같은 종족(昔日本は三韓と同種なり)

키타바타케 치카후사(北畠親房: 1293-1354년)는,

야마토 왕국의 소위 남북조 시대 때(1331-1392년), 남조의 정치적 사상적 지도자였다. 그가 1343년 경에 저술한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의 오오진 조에는 “옛날 일본은 삼한과 같은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책들은 칸무(桓武: 781-806년) 왕 때 불태워 버렸다” 라는 기록이 나온다. 현대 사학자들은, 키타바타케가 이런 말을 구태여 “오오진” 조에 기록을 한 이유를 다시 한번 꼼꼼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고구려-백제 언어와 일본어

현대 한국말과 현대 일본말의 문장구조(語順)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장구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각기 나름대로 “간소화” 된 문법형태도 동일한 알타이어 계통에 속한다. 고대 일본어에는 모음조화도 있었다. 어떤 언어의 사이도, 이들보다 더 유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앞서 소개한 대로, 이기문(1972: 32-38)은, 백제 지배층의 언어는 고구려 말과 같은데, 고구려어는 분명히 알타이어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가장 가까운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다. 비근한 예로, 알타이어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어휘의 일치가 매우 드문데, 유독 고구려어와 일본어 사이에 많은 수사의 일치가 존재하는 것은, 이 두 언어의 분리 년대가 그다지 오래지 않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5) 새로운 역사의 창조

4세기 후반,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일본 땅에 야마토 왕국을 세운 다음, 한반도의 백제와 아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대략 375년 경부터 675년 경 까지) 300여 년에 달하는 후기 고분시대를 전개했다. 야마토와 백제, 이들 두 왕국 사이에는, 소위 “후기” 고분시대라는 기간 전체에 걸쳐, 엄청난 인적 물적 교류가 지속되었다.

백제가 한반도에 건재 하는 동안, 야마토 왕조의 지배층은, 일본열도 주민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일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자신들과 백제 지배층의 근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과시했었다.

그러다가 663년에 백제가, 또 668년에는 고구려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멸망되었고, 마침내는 한반도 전체가 당나라의 힘을 빌린 불구대천의 원수 나라 신라에 의해 통일이 되었다. 한반도 정세의 급변은, 일본 땅에서의 야마토 정권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극대화 시켰다.

야마토 왕국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미 소멸된 백제와 계속 동일시하다가는, 그들보다 훨씬 앞서 일본열도에 정착을 했던 토착 세력에게 축출 당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심사숙고 끝에, 자신들의 근원을 (아이누-말라요 폴리네시아-가야 사람들과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토착화시키기로 결정 했다.

백제와의 출생상의 연결을 말소시키고, 자신들을 태고 적부터 내려오는 일본열도의 토착 세력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우선 670년에 국호를 왜(야마토)에서 일본으로 바꾸었다. 680년대 초에는 자신들 역사의 기본 골격을 고쳐 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712년에 고사기가, 또 720년에 일본서기가 편찬 완료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역사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야마토 왕국과 한반도 제 국가들과의 사이에 지배적 내지 적대적 관계를 설정한 다음, 야마토 왕족들을 위시한 지배층은, 아득한 옛날에 (한반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곧바로 (큐우슈우 땅으로) 내려와 일본 (야마토) 땅에 정착을 했다는 식으로, 일본의 국가 기원과 왕족 및 기타 지배 씨족의 근원을 완전히 토착화 시켰다.

즉 야마토 왕국은 천손(天孫)에 의해 기원전 660년에 창시된 토착 왕국으로서, 한 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왕국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왕조가 조공을 하며 받들어 모시는, 동아시아의 종주국이라는 식으로 역사를 만들어 썼다.

古事記上卷 并序

臣安萬侶言 ... 於是天皇詔之 朕聞
 諸家之所貴帝紀及本辭 既違正實
 多加虛偽 當今之時不改其失 未經
 幾年其旨欲滅 斯乃邦家之經緯 王
 化之鴻基焉 故惟撰錄帝紀 討覈舊
 辭 削偽定實 欲流後葉 時有舍人
 姓稗田 名阿禮 年是二十八 爲人聰
 明 度目誦口 拂耳勒心 卽 勅語阿
 禮 令誦習帝皇日繼及先代舊辭 然
 運移世異 未行其事矣...於焉 惜舊
 辭之誤忤 正先紀之謬錯 以和銅四
 年九月十八日 詔臣安萬侶 撰錄稗
 田阿禮所誦之勅語舊辭 以獻上者...
 和銅五年正月二十八日 正五位上勳
 五等太朝臣安萬侶 古 44-46

673-686년 기간 중 왕위에 있었던 텐무(天武)는, 야마토 정권의 영속을 위한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백제와 절연된 토착 정권으로서의 역사를 새로이 창조토록 한 다음, 히에다 아레(稗田阿禮)라는 토네리(舍人)에게 그 내용을 암기 시켰다. 토네리란 왕이나 왕족을 가까이 모시면서 시중을 드는 하급 관리이다.

1장 첫 머리에서 이미 소개 한 바대로, 고사기 서문은, 백제 멸망 직후 텐무 왕이 느꼈던 위기감과 새 역사 창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 했다: “여러 씨족들의 본가가 보관하고 있는 테이키(帝紀)와 혼지(本辭)의 내용들은 사실과 매우 다르고, 수많은 허위 내용이 가필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제 당장 그 틀린 내용들을 고치지 않으면,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 국가의 근본 기틀과 왕실의 기반이 상실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테이키 와 쿠지(舊辭)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고, 사실을 바로잡아 후세에 전하려 한다.”

텐무가 680년대 초반에 만든 이 새로운 역사의 기본 골격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기록은, 6세기 전반인 케이타이 와 킨메이 치세 때,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다.

즉 텐무는, 6세기에 편찬된 테이키와 혼지의 사실 기록들을, 자신이 구상한 틀에 맞추어 넣어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텐무가 죽은 날부터 정확히 4반세기, 새 역사는 28세의 나이로 그 내용을 외운 암송의 천재 히에다 아레의 머리 속에만 존재했었다.

겐메이 여왕은, 텐무가 히에다 아레에게 암기시켰던 내용의 역사(勅語舊辭)를, 글로 받아써서 정리를 하도록 명령했다. 712년, 야스마로는 히에다 아레로부터 구술을 받아 기록한 고사기를 겐메이 여왕에게 바쳤다. 야마토 조정은 곧이어 야스마로와 (텐무의 아들이며 텐지의 외손자인) 토네리 친왕(舍人親王)에게 명해, 이 고사기를 토대로 정식 편년체 형식의 일본서기를 편찬 하도록 했고, 720년에 드디어 그 완성 본이 나왔다.

고사기 상권은 소위 신들의 세상이라는 신대의 이야

기를 설화 형식으로 기록했다. 인간들의 세상이 시작되는 중권은, 이하레(진무)로부터 호무다(오오진)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하권은 호무다의 아들 오호사자키(닌토쿠)로부터 628년에 스이코 여왕이 서거할 때까지를 기록했다.

신대의 니니기와, 인간들의 시대(인대)의 이하레와 호무다는, 모두 야마토 왕국의 시조 한 사람에 대한 (설화 형식으로의, 또 역사 형식으로의) 기록이기 때문에, 고사기의 상권과 중권은 모두 야마토 왕국 시조의 국가 창업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셈이다.

나는 니니기-이하레-호무다 라는 복합 인격이 실제 야마토 왕국 시조 한 사람의 세 가지 측면(즉 설화, 전투와 정복, 백제인의 대거 도래)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고사기의 서문은, 수 백 명의 지역 우두머리들이 서로 싸움 박 질을 하고 있던 일본열도를, 천황족의 선조가 평정해 가는 경위를 간략하게 기록했다. 즉, 즉 야마토 왕국의 시조는, “하늘나라”로부터 (큐우슈우 서남부의 휴우가 근방에 있는) 타카치호 라고 부르는 산봉우리에 내려 온 다음, 혼슈우의 아가-키비-나니하를 거쳐 요시노 땅으로 향해 진출하면서, 저항하는 무리들을 보는 대로 소탕했으며, 천신과 지신을 받들어 모시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현명하고 성스러운 임금님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치카쓰 아후미(近淡海)에서 다스리면서 각 지방의 경계를 정하여 개발을 했고, 또 토호쓰 아스카(遠飛鳥)에서 다스릴 때, 지배씨족을 택해 “카바네” 라 부르는 조정 내의 지위를 정해주었다는 것이다 (正姓撰氏).

새로 쓰여진 이 역사는, 지배층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조직적으로 주입이 되었다. 이와 같은 자위 조치들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공이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 기록의 대부분이 상당히 거칠고 조잡하게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놀랄만한 성과였다.

그 후,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는, 천황가 가 완전무결한 일본의 토착 왕조로 새기어 졌다. 야마토 조정은 일본 최초의 “자생적인” 통일 국가의 조정으로 간주되었다. 덕분

古事記上卷 并序

臣安萬侶言...寔知 懸鏡吐珠 而百
王相續 ... 番仁岐命 初降于高千嶺
神倭天皇 經歷于秋津嶋 化熊出川
天劔獲於高倉...大鳥導於吉野 列儻
攘賊...即覺夢而敬神祇 所以稱賢后
望煙而撫黎元 於今傳聖帝 定境開
邦 制于近淡海 正姓撰氏 勒于遠飛
鳥...暨飛鳥清原大宮御大八洲天皇
御世 ... 古 42-44

에 천황가는, 실권을 완전히 상실한 후에도, 형식상의 지배자로 군림을 계속 할 수 있었다. 일본열도의 일본민족은, 동아시아 대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유일무이 특유한 민족으로 승화되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아무도 모르게 된 것이다.

하긴 당시 일본열도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었건,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 사람들은 흥미가 없었고,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다. 야마토 왕국의 지배층에게는,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조작한 역사적 무대가, 세상 사람들의 눈길에 맞지 않는 4-7세기 아시아의 동쪽 끝이었다는 사실이 천만 다행이었다.

유유럽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한 영국이라는 섬나라의 역사를 보자. 1066년에 잉글랜드를 정복한 노어만 정복자들은, 프렌취를 사용하면서, 프랑스 땅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일단 그들이 노어만디의 본거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자, 자신들의 운명을 잉글랜드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말도 프렌취를 포기하고 잉글리쉬를 공용어로 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노어만 정복자들은, 실권을 상실한 후에도 존경을 받으며, 형식상의 지배자 위치를 계속 보존할 수 있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역사를 고쳐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조작하려해도, 무대가 11-14세기의 유럽 대륙이었다는 것이 극복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어떤 목적으로 편찬되었는지만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나면, 고대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이들 기록이 자료의 보고가 될 수 있다. 하긴 일관성이 유지되는 편차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편차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독자들이 읽으면서, 계속 똑 같은 각도로 자동 조정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8세기 초, 히에다 아레의 구술을 받아 고사기를 기록한 야스마로가 말하듯, 그 당시보다도 몇 백 년 전에 살았던 4-5세기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나 그 의미하는 바는 아

주 소박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그 말들을 모두 미묘하게 세련된 한문으로 옮겨 적기가 대단히 힘들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본래의 뜻을 곧이곧대로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한자들을 모두 음(音)으로만 사용해 옛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너무 장황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야스마로는, 한 개의 문장 가운데서도, 때로는 한자를 그 뜻(訓)으로, 때로는 그 음(音)으로, 뒤섞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특정한 한자들이 도대체 음으로 쓰인 것인지, 혹은 뜻으로 쓰인 것인지, 읽는 사람이 혼동을 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주석을 달았다.

정식으로 편찬 진을 구성하여 720년에 완성된 일본서기는, 고사기와 달리, 모두 정식 한문으로 연월일의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이 되었다.

새 역사는 “토착 지배 세력”으로서의 야마토 왕실의 정체성을 새삼 확립 시켜 주었고, 천황가가 비록 10세기 이후에 정치적 실권은 상실했지만, 오늘날까지 일본열도의 상징적 지배자로서 그 위치를 유지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이 없었다면, 야마토 왕실은 그 실권을 훨씬 더 빨리 상실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착세력은 천황가를 상징적으로나마 일본 땅의 지배자로서 계속 군림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텐무의 해안을 다시 한번 평가해야 할 것이다.

古事記上卷 并序

臣安萬侶言...然上古之時 言意並朴
敷文構句 於字即難 已因訓述者
詞不逮心 全以音連者 事趣更長
是以今 或一句之中 交用音訓 或
一事之內 全以訓錄 卽 辭理匠見
以注明 ... 古 46-48

Chapter 3 begins at 31.